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라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7위, 중국은 2위로 도약

– 시공과 가격 경쟁력에 비해 설계 경쟁력 떨어져, 우수 인력 양성과 제도 개선 시급 –

박환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4년 대비 30% 감소하여 약 461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국내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적 수주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기업들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리한 해외 건설공사의 저가 수주와 계약 조건의 이해 부족은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의 기업 경영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수주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선진 외국 건설업체들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수요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과 M&A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기업도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2015년 국가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 결과

글로벌 건설 경쟁력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과 건설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1] 글로벌 건설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산업을 보유하는 것을

1) 박환표, 한재구,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12, p.9.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건설 경쟁력의 평가 지표는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과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은 각국 건설시장 규모, 건설시장 성장률, 시장 안정성, 건설 리스크, 건설 제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기업별 역량은 시공 경쟁력, 설계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설계 및 시공 경쟁력 평가는 국가별 해외 매출액, 국가별 기업 수, 국제화(해외 매출액 비중), 성장성(전년도 대비), 신규 수주액, 설계 및 시공 생산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COMPASS 및 ENR 데이터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상기 평가 지표에 따라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는 2015년에 발표된 ENR지의 세계 250대 건설기업과 225대 설계기업을 대상으로 통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 모델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19개 국가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지만, 스페인(3위), 독일(4위), 프랑스(5위) 등 유럽의 강세 또한 지속되었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 결과는 미국 1위, 독일이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11위를 기록하여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리고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 평가 결과,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6위를 기록해 2014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건설시장 안정성에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9위→11위)하였으나 건설 제도(13위→12위)와 인프라(11위→10위) 등의 지표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특히, 총 14개의 세세부 지표 중 건설 리스크(4위→10위)는 6단계 하락하여 인력 · 자재 조달 등 건설 환경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19위→18위)과 부패인식지수(14위→13위)는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 평가는 시공 경쟁력(6위→5위)에 비해 설계 경쟁력이 크게 상승(16위→11

국가별 건설산업 경쟁력 종합 평가 결과(2015년)

순위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 평가		글로벌 건설 경쟁력 종합 평가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1	U.S.A.	U.S.A.	U.S.A.	U.S.A.	U.S.A.	U.S.A.
2	Germany	Japan	China	China	China	Germany
3	Japan	Germany	Spain	Spain	Spain	China
4	U.K.	U.K.	Turkey	France	Germany	Spain
5	Netherlands	U.A.E.	France	Germany	France	France
6	U.A.E.	Sweden	S. Korea	S. Korea	U.K.	Netherlands
7	Denmark	Netherlands	Italy	Italy	S. Korea	U.K.
8	Sweden	Denmark	Germany	Turkey	Japan	S. Korea
9	Canada	France	U.K.	Netherlands	Netherlands	Japan
10	France	Canada	Netherlands	Sweden	Turkey	Sweden
	S. Korea(11위)	S. Korea(11위)				

국가별 건설 인프라 및 건설기업 경쟁력의 세부 항목 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 지표					
	건설시장 안정성		건설 제도		인프라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1	China	China	Denmark	Sweden	Japan	Japan
2	U.S.A.	U.S.A.	Sweden	Denmark	Germany	Germany
3	Japan	Japan	U.A.E.	U.A.E.	Netherlands	Netherlands
4	U.K.	U.K.	U.K.	U.K.	U.K.	U.S.A.
5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U.S.A.	U.K.
	S. Korea(11)	S. Korea(9)	S. Korea(12)	S. Korea(13)	S. Korea(10)	S. Korea(11)

순위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 평가 지표					
	시공 경쟁력		설계 경쟁력		가격 경쟁력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1	China	China	U.S.A.	U.S.A.	India	India
2	Spain	Spain	Netherlands	Netherlands	Egypt	Egypt
3	U.S.A.	U.S.A.	Canada	U.K.	China	China
4	France	Germany	Turkey	Spain	Turkey	Turkey
5	S. Korea	France	U.K.	Egypt	S. Korea	S. Korea
		S. Korea(6위)	S. Korea(11위)	S. Korea(16위)		

위)하였고, 가격 경쟁력(5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설계 경쟁력은 해외 매출액 비중과 해외 매출액 성장률이 높아져서 5단계 상승하여 11위를 차지하였지만, 아직도 설계 생산성 9위, 전체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액 비중이 14위로 평가되어, 설계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 확충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의 시사점 및 개선 방향

미국은 시공 및 설계 분야에서 기업별 경쟁력이 매우 높으며, 중국은 건설시장 규모와 성장률, 시장 안정성,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합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7위를 차지하였다. 그 원인은 설계 경쟁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공 경쟁력과 국가별 건설 인프라 경쟁력의 상승으로 7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ENR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시공 경쟁력 분야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발전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고, 투명성 확보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 건설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유가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중동 시장에서 탈피하여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으로의 시장 다각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건설기업이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 세부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우수 인력 확보와 사업관리 능력 제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시공 분야의

경우 금융조달 능력과 효율적인 해외 사업 조직 구축이 필요하고, 설계 분야의 경우에는 FEED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해외 마케팅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사업을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관련 경험이 있는 우수 기술자 및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우수 인력의 확보는 시급해 보인다.

둘째, 해외 시장 정보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업 수주 활동 또는 수행시 전문 인력 부족과 더불어 유용한 해외 수주 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하락이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관련 협회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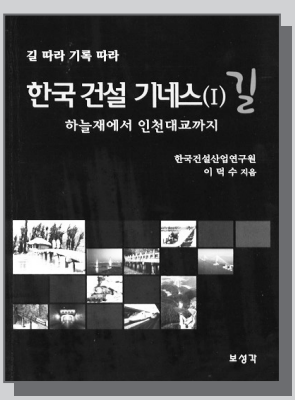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모색해야 한다. 세계 건설시장에서 해외건설이 지속 성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 역량 등 글로벌 건설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1. 박환표, 한재구,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12.
2. Engineering News-Record(ENR) 각호(2005-2015). "The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McGraw Hill Construction.
3. Engineering News-Record(ENR) 각호(2005-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McGraw Hill Construction.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립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